

마리 알랭 쿠튀리에가 주창한 성미술(L'Art Sacré) 운동의 건축적 의미와 특성 고찰

반상철*, 김홍기²

¹서원대학교 건축학과, ²동양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L'Art Sacré Movement advocated by Marie Alain Couturie

Sang-Chul Bahn*, Hong-Ki Kim²

¹Dept. of Architecture, Seowon University

²Dept. of Interior Design, Dongyang Mira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현대교회 건축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 마리 알랭 쿠튀리에(Marie Alain Couturie)가 주창한 성미술(L'Art Sacré) 운동의 추진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미술 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성미술 운동 속에 내재해 있는 건축적 담론, 특히 쿠튀리에가 주창한 건축개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차적으로 1936년부터 1954년 사이에 성미술 운동의 기관지 라르 사크레지에 기고된 쿠튀리에의 글 속에 나타난 언설을 분석하고, 2차적으로 성미술 건축 프로젝트의 현지답사를 통해 성미술 운동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성미술 운동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아시성당과 로사리오성당, 통상교회, 라투렛수도원, 로스코채플 등 5개의 프로젝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쿠튀리에의 건축개념의 특성은 '시적'(Poetic) 분위기의 창출에 기초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재료의 즉물성과 순수함은 모더니즘기의 추상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쿠튀리에 신부는 르 코르뷔지에를 성미술 운동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건축가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룡상 성당과 라투렛 수도원을 탄생시키는 직접적 동인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중반 교회건축의 혁신을 일으켰던 성미술 운동의 전개과정과 쿠튀리에 신부가 펼친 건축개념의 분석을 통해 현대교회건축의 공간이미지 구성과 디자인에 지침과 교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architectur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L'Art Sacré Movement advocated by Dominican Father Marie Alain Couturie. From 1936 till 1954 Father Couturier was the chief editor of the review L'Art Sacré that became very influential among art critics no longer satisfied with what was considered outdated 19th century church interior decoration. Marie Alain Couturie was a French Dominican friar and Catholic priest who gained fame as a designer of stained glass windows. He was noted for his modern inspiration in the field of Sacred Art. Couturier's greatest ambition was to revive Christian art by appealing to the independent masters of his time. From these viewpoint, we investigat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movement and analyzed the architectur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which represented the Art Sacré movement. The analyzed chapel buildings were as follows: 1) The Church of Notre-Dame de Toute Grâce du Plateau d'Assy, bringing together Braque, Matisse, Rouault, Léger and Chagall, 2) The Chapel of Saint-Marie Rosaire by Henri Matisse, 3) The Chapel of Notre Dame du Haut and The Couvent de La Tourette by Le Corbusier, and 4) The Rothko Chapel by Mark Rothko and Philip Johnson. These L'Art Sacré projects inscribed themselves within what was the century's most serious attempt at the reintegration of Art and religious space. Couturier's interactions with artists and architects are traced and shown to have played a major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priest's thinking and Church interior decoration. At the same time, Couturier's clear and vigorous L'Art Sacré articles were both defining the theoretical basis of new vision and anticipating the renewal of the religious space.

Keywords : Chapel, L'Art Sacré (Sacred Art), Marie Alain Couturie, Le Corbusier, New version, religious space

*Corresponding Author : Sang-Chul Bahn(Seowon Univ.)

Tel : +82-10-5492-0755 email : gahwoon@seowon.ac.kr

Received October 12, 2016

Revised (1st October 28, 2016, 2nd November 22,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종교화는 서양미술사 및 종교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성화는 기독교 문명의 세계관을 표상하는 핵심 주제였으며, 교회건축 내부에는 거의 모두 종교적 메시지를 발현하기 위해 종교적 주제의 천장화와 벽화가 장식됐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종교적 주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신앙의 시대가 가고 이성과 물질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구축소와 수도회 해산 등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종교를 구심점으로 철저히 위계질서의 틀 안에 묶여있던 사회구조와 법, 학문, 예술들의 가치 영역들이 분화되게 된 것이다. 즉 미술은 종교적·신화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주술적 믿음과 신화적 신비감이 쇠퇴하자 화가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찾아 나섰고, 그림의 형식 또한 급속한 변이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앙드레 말로가 인상파를 ‘추상을 향한 위대한 전진’으로 묘사했듯이, 형식의 변증으로 표상되는 개혁프로그램이 작동된 것이다. 그러나 종교예술 분야만은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양식을 적당히 수용하는 퇴행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과거처럼 엘리트 예술가들이 교회건축을 위해 예술혼을 투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의식 있는 종교계의 젊은 선각자들은 이를 교회건축의 위기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종교미술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기치아래 가톨릭교회에 새로운 미학을 불어넣으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생성되었다. 마리 알랭 쿠튀리에(Marie-Alain Couturier)를 비롯한 도미니크 수도회의 진보적인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아르 사크레’(Art Sacré), 즉 성미술(聖美術) 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쿠튀리에 신부의 적극적 활동으로 아시성당과 로사리오 성당, 현대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룡상교회와 라투렛 수도원이 탄생되었다. 찰스 쟁크스를 비롯한 많은 건축 이론가들이 언급했듯이 룡상교회는 종교건축의 신기원이자 현대건축의 전환점을 알리는 이정표였다[1]. 그런 의미에서 쿠튀리에가 펼친 성미술 운동은 단순히 교회건축의 혁신만이 아닌 현대건축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가 회고했듯이 쿠튀리에 신부가 아니었으면 룡상성당과 라투렛수도원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쿠튀리에에는 단순히 종교적 이념으로 무장된 사제가 아닌 현대건축에 관한 확고한 신

념을 지녔던 이론가이자 사상가였다[2].



Fig. 1. Le Lancy Church, August Peret, 1923

그동안 ‘아르 사크레’(성미술) 운동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쿠튀리에 신부가 추구한 건축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맥락에서 20세기 중반 교회건축의 혁신을 일으켰던 성미술 운동의 전개과정과 더불어 쿠튀리에 신부가 펼친 건축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1950년대 쿠튀리에와 르 코르뷔지에 사이에 펼쳐졌던 일련의 건축활동에 주목하였다. 현대 화가들을 교회건축 디자인에 적극 참여시켜 예술성을 높이고자 한 쿠튀리에의 성미술 운동의 취지 속에서 현대교회건축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 쿠튀리에의 생애와 그가 주창한 성미술 운동의 전개과정을 다룬 문헌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성미술 운동 속에 내재해 있는 건축적 담론, 특히 쿠튀리에가 주창한 건축개념과 장식논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성미술 운동의 기관지인 라르 사크레(L'Art Sacre)지에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기고된 쿠튀리에의 글 속에 나타난 언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쿠튀리에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야말로 그의 건축적 사유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인 동시에, 성미술 운동의 추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1950년부터 1953년 사이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가 성미술 운동의 전성기로, 실현된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룡상교회와 라투렛 수도원 프

로젝트가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3].

문헌 연구와 병행하여 쿠튀리에 신부에 의해 추진된 건축 프로젝트의 현지 답사를 통해 ‘라르 사크레’ 잡지에 그가 서술했던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미술 운동의 성과물에 대한 답사는 지역별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프랑스 영토에 위치한 아시성당과 로사리오 성당, 룡상교회와, 라투렛 수도원은 2012년 7월 방문 조사를 하였고, 쿠튀리에 신부의 조언을 받아 완공된 휴스톤에 위치한 로스코 채플은 2013년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답사는 ‘라르 사크레’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미술 운동의 전개과정과 쿠튀리에의 건축적 활동에 대한 ‘사적 고찰’의 형식을 취하게 됨에 따라, 개개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공간적 해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2. 쿠튀리에의 생애와 성미술 (L'Art Sacré) 운동의 전개과정

2.1 쿠튀리에 신부의 생애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페르낭 레제, 조르주 루오, 르 코르뷔지에 같은 당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교회 건축 작업에 끌어들이 마리 알랭 쿠튀리에에는 1897년 프랑스 몽브리송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 화가의 꿈은 전쟁으로 1919년이 되어서야 진보적인 미술학교 아카데미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미술교육을 받았다.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와 조르주 데발리에르(Georges Desvallieres)가 이끄는 아르 사크레 스튜디오(les Ateliers d'art sacre)에서 스테인드글라스와 프레스코화 등 종교미술과 관련한 기법을 습득한 그는[4] 모리스 드니와 함께 1923년 파리에서 동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 위치한 르 랑시(Le Raincy)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에 참여하면서 건축과 장식예술의 상관성을 체득하게 되었다[5].

오거스트 페레의 설계로 1923년 완공된 이 성당은 프랑스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 성당으로, 벽체가 완전히 구조로부터 해방되는 모더니즘 건축의 본질이 응축되어 있었다. 공간 어디에도 고딕건축의 요소인 첨두아치와 리브 볼트가 등장하지 않고, 격자 그리드의

창문 패널과 스테인드글라스 디자인 역시 구상성에서 벗어나 추상성을 지니고 있었다. 쿠튀리에에는 이 작업을 통해 새로운 구조와 공법에 의해 구현되는 모더니즘 건축의 본질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모더니즘 예술을 이끌던 마티스와 피카소, 르 코르뷔지에를 알게 되지만 그의 내부에서는 새로운 열정이 뜨겁게 솟구치고 있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파울 클로델(Paul Claudel)과 레옹 블로이(Léon Bloy)의 ‘영성’(spirituality)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작품을 읽고는 정신적인 성찰에 몰두하게 되었다[6]. 그들의 작품에 감화된 그는 1925년 9월 22일 수도사가 되기 위해 아미앵의 도미니크 수도원을 찾았다[7]. 이 수도생활 기간에도 미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수도원 고위 성직자가 교회내부의 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쿠튀리에에는 ‘오늘날 교회예술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현대미술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못함을 이렇게 역설했다. “오늘날 교회건축은 모두 다 생명력이 없고 먼지를 뒤집어 쓴 아카데미즘 뿐입니다. 마네, 세잔, 마티스, 피카소 같은 현대 화가들은 모두 성당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예술가들처럼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들 중세 교회에 있는 거장들의 작품처럼 직접적이고 강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8]. 도미니크 수도회에 입문하지 5년이 경과한 1930년 7월 25일 쿠튀리에에는 사제 서품을 받는다. 그가 종교미술의 낙후성을 직시하고 있을 무렵,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에 새로운 미학을 불어넣고자 하는 움직임이 탄생하면서, 쿠튀리에에는 자신이 지녀왔던 종교건축과 현대미술의 합일이라는 대전제를 실천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2.2 성미술 운동의 전개과정

1935년 7월 마리 알랭 쿠튀리에 신부 등이 주동이 되어 ‘성미술’을 뜻하는 ‘아르 사크레’(Art Sacré)의 기치 아래 뭉쳤다. 이 운동의 열렬한 후원자 조셉 피샤르(Joseph Pichard)가 종교미술잡지 라르 사크레(L'Art Sacré)를 창간하여 성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1937년 1월 창간된 ‘라르 사크레’는 격월간지로, 쿠튀리에 신부는 1937년부터 1954년 사망하기까지 편집을 맡아보게 된다. 성미술 운동의 주동자들은 교회미술의 퇴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미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명확한 가치관을 내세웠다. 지나치게 장식적이거나 일화적인 요소가 생략된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교회건축을 지향했고, 교회건축과 세속미술을 연결시킨다는 전략으로 작가의 신앙심보다는 예술적 재능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교회미술의 타락이 아카데미즘의 답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중세미술의 정신성이 강조된 프라 안젤리코의 미술을 모범으로 삼았다[9].

쿠튀리에는 레가미 신부와 함께 성미술 운동의 첫 건축 프로젝트로 프랑스 동부, 오트 사보아(Haute-Savoie) 지역의 아시(Assy)에 성당을 짓기로 하였다. 스위스와 국경을 접한 몽블랑 근처의 작은 산골마을에 위치한 아시는 폐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중심구역으로 많은 가톨릭교도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구의 설립이 필요한 곳이었다. 1937년에 건축공모를 실시하여 당선된 건축가 모리스 노바리나(Maurice Novarina)의 설계안을 토대로 1938년 착공되었다. 1939년 3월 쿠튀리에는 로마에서 산타 사비나(Santa Sabina)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끝낸 후, 프랑스로 돌아와 아시성당 건설작업 책임자인 장 드보메(Jean Devemy) 신부를 찾아 협의하였다[10]. 쿠튀리에가 아시에 도착했을 때는 노바리나 설계에 의해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벽체공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었기에 성당 내부를 장식할 예술가 섭외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쿠튀리에는 드보메 신부에게 파리 미술계의 근황을 들려주면서 우수한 예술가의 참여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쿠튀리에는 현대미술을 교회공간에 접목시키기 위해 예술 감독에 오트 피르를 선임한 후 참여할 화가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예술가들에게는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내부를 장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부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참여할 예술가들을 섭외하기 위해 파리 화단을 둘러볼 무렵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계획은 유보해야만 했다. 독일군이 파리를 침공하는 1940년 1월 쿠튀리에는 전쟁을 피해 뉴욕으로 건너갔다. 당시 뉴욕은 현대미술 흐름을 파악하기에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달리, 스트라빈스키와 교류했고, 레제와 오장광, 샤갈 등과 함께 뉴욕 주재 프랑스 고등연구학교에 프랑스 현대미술회관을 개설해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11]. 단기간이었지만 현대미술의 흐름을 체험한 쿠튀리에는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는 1945년 8월, 아르 사크레 운동의 실천에 전념하기 위해

파리로 귀환하여 본격적인 성미술 운동의 실행에 나서게 되고, 현대미술의 대가들을 설득하여 중단되었던 아시성당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앙리 마티스와 조르주 루오, 마르크 샤갈 등 당대의 위대한 화가들을 초대하여 성미술 운동의 첫 사례를 실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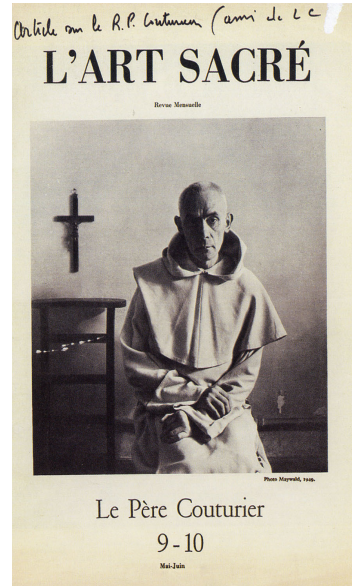


Fig. 2. Le Pere Couturier at Magazine L'Art Sacr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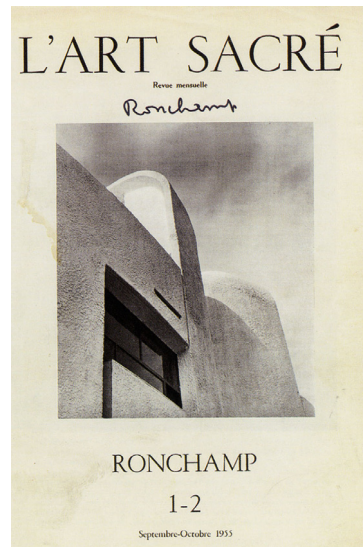


Fig. 3. Ronchamp in Cover L'Art Sacré, 1955. 1-2

3. 성미술 운동의 건축개념과 장식논리

3.1 라르 사크레지와 성미술 건축개념

성미술 운동의 기관지 ‘라르 사크레’(L’Art Sacré)에 실린 쿠튀리에의 기고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집중되는데, 이 시기에 무려 12편의 글이 실렸다. 이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성미술 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성미술 운동의 주요 성과물인 아시성당(1950)과 오댕꾸르 성당(1951), 로사리오 채플(1951)이 잇달아 완공될 뿐만 아니라 롱상 교회의 공사가 착수되고 라투렛 수도원의 설계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전쟁기간 중 휴간되었던 ‘라르 사크레’지가 재발행된 것은 1948년이나, 1950년 이전까지 쿠튀리에가 기고한 글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미국 휴스턴의 메닐 재단(Menil Foundation)은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쿠튀리에가 기고한 12편의 글들만을 모아 단행본 ‘Sacred Art’.[12]를 발행하는데, 3장에서는 쿠튀리에의 12개 기고문에 나타난 언설을 토대로 성미술 운동의 건축개념과 장식논리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쿠튀리에가 기고한 12개의 기사 제목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쿠튀리에의 성미술 개념은 종교건축의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해 당대의 위대한 예술가들을 새로운 성당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려 공간의 심원성을 회복하는데 1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쿠튀리에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초기 성미술 프로젝트인 아시성당과 오댕꾸르 성심성당에서는 여러 명의 예술가들 끌어들이려 결과 다양한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처럼 통일성이 부족하고 건축적인 현재성도 미약함을 절감하였다. 이후 성미술 운동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관과 종교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의 미학적 관점과 건축가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시토회 수도원 건축에 나타난 검박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한 개념은 쿠튀리에 신부가 쓴 논고를 통해 강화되고,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Fig. 4. Assy Cathedral, by Matisse, Chagall and other Artists.

Table 1. Contribute to Magazine L’Art Sacré by Coutrie

Published No.	Title	Main Contents
Jan.-Feb. 1950	Secular art, sacred art : (For the eyes ; Purity)	Differences between Secular arts & Sacred arts. Emphasizing the Purity & Autonomy
May-June 1950	The priest and artisique Creation	The Standards & Values of the great art works & the great artists as seen from the sacred art view.
July-Aug. 1950	When The poverty rules: (The magnificence of poverty)	Laws & Historical cases for implementing the Sacred spaces \$ the Encourage thrift.
Sep.-Oct. 1950	Assy (What Assy teaches us)	Assi cathedral lessons. Proposal for the cause of failure for first work of sacred arts movement and the importance for selection of architects. Relationship to Sacred arts & Publicity.
Jan.-Feb. 1951	Sacred art and its public	Analysis for problems of church art that away from the crowd Religious profound and abstraction of Primitive art.
Mar.-April 1951	The painful problem of the arts in missionary lands	Abstractness acceptance of Modernism art.
July-Aug. 1951	Vence	The Sacred values & Architectural meanings of Rosair Chapel by Matisse.
Nov.-Dec. 1951	Audincourt	Analysis for Sacred meanings of artist who took part in competed sacred heart cathedral at 1951. Simplicity & piety.
Nov.-Dec. 1952	Modest tasks	Frugal of the Monastery. Precept from Sénanque and Le Thoronet Abbey
May-June 1953	Byzantium and our efforts	Compare to spiritual values for Byzantium architecture and Sacred art Cathedral project.
Nov.-Dec. 1953	Ronchamp	Reflecting to Sacred values & Architectural archieveness for Ronchamp

3.2 쿠튀리에의 성미술 건축개념

쿠튀리에가 성미술 운동의 기관지인 ‘라르 사크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1948년 이후 잡지의 레이아웃과 글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쿠튀리에에는 잡지의 편집디자인 역시 성미술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글에는 여백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편집장이었던 레가미 신부와의 노선 차이를 보였다. 레가미 신부가 ‘라르 사크레’에서 교육(Pedagogy)적인 차원을 강조한 반면, 쿠튀리에에는 종교미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적’(Potery)인 성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시적’ 성향이 무엇인지는 쿠튀리에가 레가미에게 1949년에 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아르 사크레의 목적은 사람들의 취향을 재구축하는데 모아져야 합니다. 특히 시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13]라고 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쿠튀리에에는 1950년 완공된 아시성당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아시성당은 결코 걸작이 아니고 완전하지도 못하다고 평했다. 여섯 명의 작가가 참여한 스테인드글라스 뿐만 아니라 건축에 있어서도 과실이 발견된다는 것이었다[14]. 너무 많은 작가들이 참여함에 따라 작품 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건축이 갖는 정신적 순수함과 검소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당이라기보다는 전시실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시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쿠튀리에에는 우리가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좀 더 엄격한 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 간행된 아르사크레 5-6월호에 실린 ‘세속예술과 성스러운 예술’에서 쿠튀리에에는 성스러운 예술이 되기 위한 두 개의 관점을 제시했다. 하나는 ‘순수함’(Purification), 다른 하나는 ‘자율성’(Liberation)으로 [15], 쿠튀리에에는 순수함이 가장 잘 나타난 건축으로서 르 코르뷔지에의 설계로 완공된 마르세이유의 집합주택 위니테 다비타시옹((United d'Habitation)을 꼽았다. 1950년 7-8월호 라르 사르크지에 위니테 다비타시옹의 저층부 사진을 실고는 콘크리트 재료가 갖는 순수함과 검박함을 강조했다. 쿠튀리에의 성미술 구현을 위한 건축적인 의사 표명은 곧이어 발간된 1950년 7-8월호에 실린 ‘가난(검박)의 장려함’(Magnificence of Poverty)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1952년 11-12월호에 게재한 논고에서는 검박함의 대표적인 사

례로 시토회의 자매 수도원인 세낭크 수도원(Sénanque Abbey)과 르 토로네 수도원(Le Thoronet Abbey)을 언급하였다. 특히 르 토로네 수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Fig. 5. The Corridor of Le Thoronet Abbey

“르 토로네와 같은 거대한 걸작은 천재에 의해 건설되었고, 과시적인 건물이 아님에도 종교적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 걸치레가 없는 평범함은 사소한 것조차도 감동으로 몰아넣는다.”[16] 가난과 청빈을 외치는 수도사들이 침묵으로 묵언 수행하는 르 토로네 수도원 내부에는 오르지 단순한 선(line)과 ‘넓고 평평한 즉물적인 평면’(broad naked planes)만이 존재하였다. 석재의 쓰임은 지극히 검박하고 장식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으며 석재끼리의 맞춤 또한 정교하면서 단순하게 되었다. 쿠튀리에에는 르 토로네 수도원 내부야말로 어디하나 모자람도 없는 더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쿠튀리에에는 ‘순수’(purity)라는 단어를 ‘stripped’ 라는 단어와 연결시킨다. 이는 피복되지 않은 재료의 상태를 말한다. ‘세낭크 수도원과 르 토로네 수도원은 재료의 솔직함과 무장식성을 통해 ‘존엄함’(dignity)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존엄함의 건축적 달성은 선의 질과 재료의 즉물성에 비례해서 나오는데 많은 종교건축 중에서도 11세기 이후 등장하는 시토회 수도원 내부가 그렇다는 것이다. 재료의 솔직함과 단순함, 장식이 배제된 즉물성과 같은 어휘는 근대건축의 모토와 일치하는 건축개념이다. 이는 쿠튀리에가 무신론자였던 르 코르뷔지에를 성미술 운동의 가장 적합한 건축가로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르 사크레 1950년 5-6월호에 실린 논고 ‘사제와 예술적 창작’(Le pretre et la Creation artistique)에서 쿠튀리에에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들

에게 맡겨져야 한다. 성당을 하나 건축해야 한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건축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간에 바로 그가 가장 적격자이며, 또 그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쿠투리에는 또한 기독교 미술의 부흥사에 있어서 1951년 1월 20일을 역사적인 날로 언급하고 있다. 성미술 교수위원회에서 페르낭 레제의 스케치 17점, 장 바젠 (Jean Bazaine)의 대형 모자이크 모형 및 르 코르뷔지에의 통상 교회 설계도 등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프랑스 교회에 있어 큰 변화라고 쿠투리에는 강조하고 있다 [17].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페르낭 레제와 르 코르뷔지에 모두 무신론자였기 때문이다.

쿠투리에는 르 코르뷔지에에게 성당건축을 의뢰했을 때, 가톨릭을 믿는 건축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며 르 코르뷔지에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쿠투리에는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신자가 아니기에 오히려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통상성당 내부에는 조각상과 성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공간과 빛, 색채와 재료에 의해 성스런 분위기가 유도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라투렛 수도원 설계 역시 노바리나에게 의뢰되어 설계를 마친 상태였으나 쿠투리에는 르 코르뷔지에에게 재설계를 맡기기 위해 진력을 다하였다[18]. 이렇듯 쿠투리에 신부는 신앙보다도 재능을 중시했다. 즉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는 절충주의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건축가의 선정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4. 쿠투리에는의 성미술 건축 프로젝트

3장에서 분석된 쿠투리에는의 건축개념과 장식논리를 토대로 4장에서는 성미술 건축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쿠투리에는가 직접 관여해 완공된 프로젝트와 함께, 성미술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완공된 로스코 채플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4.1 사례별 분석

4.1.1 로사리오 성당

니스에서 서북쪽으로 23킬로미터 떨어진 중세마을 방

스의 구릉에 위치한 로사리오 성당(Chapel of Saint-Marie Rosaire)은 도미니크 수도회 수녀들을 위한 예배당인 동시에 폐결핵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지어진 작은 성당으로 ‘마티스 성당’으로도 불린다. 가로 15미터, 세로 6미터, 높이 5미터에 불과한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성당의 건축설계는 물론 벽화와 스테인드글라스에 이르기까지 앙리 마티스가 직접 제작하였다. 이전까지 마티스는 건축설계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건축가 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프로젝트가 시작 무렵, 쿠투리에는 마티스를 찾아가 르 코르뷔지에에게 건축설계를 맡길 것을 권하지만 마티스가 생각하기에 르 코르뷔지에는 너무 개성이 강해 거절했다.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티스는 오거스트 페레에게 건축 자문을 받아 독자적으로 성당을 설계하기로 결정한다[19].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마티스는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건축과 장식예술이 총체화된 ‘건축학적 그림’을 완성해 내기 위해서는 쿠투리에는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스테인드글라스 작가로도 활동한 쿠투리에는 마티스를 만나 스테인드글라스의 원리를 노트르담 성당 남측 장미창을 예로 들면서 푸른색과 핑크빛이 만나 어떻게 보라색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어느 화가보다도 색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마티스에게 스테인드글라스는 최적의 소재였다. 빛과 색의 집대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마티스 후기 작품을 대표하는 걸작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스테인드글라스 ‘생명의 나무’가 연출해내는 빛의 판타지는 채플 내부공간을 찾는 방문객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Fig. 6. Chapel of Saint-Marie Rosaire by H. Matisse

마티스의 후기작품에 나타나는 종이 오리기 기법을 사용한 ‘생명의 나무’는 파랑, 노랑, 초록 세 가지 색으로 추상화되어 있다. 피카소를 비롯한 몇몇 작가와 평론가들은 경건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색의 유희를 통한 낙천적 느낌만 존재한다고 혹평을 늘어놓았지만 마티스가 목표한 것은 경건감이 아니라 빛과 색에 의해 영적으로 정화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종교적 엄숙함이 부여하는 무게감보다는 속세의 모든 짐을 털어내는 듯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전하는 것이었다. 로사리오 채플은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를 지향했던 성미술 프로젝트답게 단순한 평면에 세 개의 벽화와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다. 생명의 나무가 위치한 제단 벽면에는 수도회의 설립자 성 도미니크상이 자리하고 있다. 긴 수사복을 걸친 쿠튀리에 신부를 모델로 삼아 백색의 타일에 제작된 성 도미니크 상은 기존의 도상과 달리 마티스 특유의 생명력이 넘치는 간략한 선묘로 구성되어 있다 [20].

입구 쪽 벽면에 위치한 벽화 <십자가의 길>로 시선을 돌려보면 선묘는 더욱 거칠다. 마티스는 예수가 수난을 당한 14처의 그림을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 추상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모자상에서도 성모와 아기 예수 얼굴을 윤곽선만으로 그렸다. 추상화 된 선묘는 범접할 수 없는 종교적 신비감으로 안내하며, 성모와 아기예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 그린다는 것이 한계 밖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Fig. 7. Chapel of Saint-Marie Rosair by H. Matisse. Priest Couturie with black priest costume

로사리오 채플은 1951년 6월 25일 개관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51년 8월, 남프랑스 카프마르탱 별장에 머물고 있던 르 코르뷔지에는 마티스 성당을 방문

하기 위해 방스를 찾았다. 르 코르뷔지에는 별장이 있던 갑 마르탱에서 방스까지는 승용차로 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로사리오 채플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르 코르뷔지에는 경탄하였다고 한다. 푸른 빛과 노란 빛이 감도는 밝은 색조의 스테인드글라스와 흑백의 벽화, 대담하게 정제된 십자가상, 모두 것이 기대 이상이었다.

르 코르뷔지에는 마티스 작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마티스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화가이며 예술가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성당을 방문 며칠 뒤 마티스에게 “당신이 설계한 방스의 채플을 며칠 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에 기쁨과 청명함, 원기가 담겨 있어 자신도 모르게 송고함과 기쁨에 빠집니다. 당신의 작업은 나에게 용기와 자극을 주었습니다. 종교건축에 대한 나의 사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작은 채플은 정말 대단한 기념물입니다. 다시 한 번 삶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라는 편지를 보낼 만큼 감탄하였다. 마티스가 자신을 배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쓴 편지였다. 르 코르뷔지에는 로사리오 채플을 통해 종교건축에 있어서 빛과 색채의 관계에 대해서 각인하게 되고 이는, 룡상성당 내부에 감도는 화려한 빛과 색에 대한 전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1.2 룡상성당

아시 성당의 건축적 실패 이후 쿠튀리에는 건축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로사리오 채플에서는 마티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르 코르뷔지에는 말로 성미술 운동에 가장 적합한 예술가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르 코르뷔지에는 쿠튀리에 신부의 첫 만남은 1948년 이루어졌다[21]. 쿠튀리에가 마르세이유 인근 라 생트 봄(La Sainte Baume)에 위치한 동굴성당의 설계를 르 코르뷔지에는에게 의뢰하여 계획안이 수립되지만, 프랑스의 추기경과 대주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었다. 르 코르뷔지에는 다시는 수도회가 의뢰하는 일을 맡지 않겠다고 하였다[22]. 1950년 쿠튀리에는 르 코르뷔지에

를 다시 찾아가서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룡상언덕의 순례자 성당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르 코르뷔지에는 가톨릭을 믿는 건축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거절하였으나, 쿠튀리에는 “나는 당신이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고 간곡한 요청이 거듭되자 1950년 6월 4일 통상 언덕을 방문하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쿠틀리에에는 최고의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르 코르뷔지에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어떠한 종교적 단서도 달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53년 7월 쿠틀리에에는 르 코르뷔지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이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당신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일이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자 가장 순수한 작업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23].

1951년 1월 브장송 대주교 관구의 성미술위원회에 안을 제출하여 그해 1월 20일에 승인을 받지만, 계획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착공까지 무려 3년이 더 소요되었다. 반대는 주로 지역 신자와 주민들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은 새로운 형태보다는 옛 성당을 재건하길 원했다. 지역신문 또한 너무나 파격적인 계획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폈다[24]. 기독교적 전통에 익숙한 가톨릭 신자들이 보기에 르 코르뷔지에의 설계는 지나치게 전위적이었고, 기존의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양식의 건축적 정서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백색의 콘크리트 벽면 어디에도 벽화나 조각상이 장식되지 않았다. 스테인드글라스 또한 종교적 구상성이 배제된 채색면 분할로 추상화되어 있었다. 직설적으로 종교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는 성당 북쪽 면에 위치한 성모상뿐이었다. 그마저도 거대한 콘크리트의 낭만적 조형의 위세에 눌러 왜소하게 느껴지게 보였다. 성모마리아를 경배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모상은 위용을 잃은 채 부수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 대신 빛이 만들어내는 성스런 분위기가 성당내부를 지배하게 하였다. 오장광과 함께 퓨리즘을 주창한 화가이자 건축가라는 점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현대미술과 종교건축의 결합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최고의 책임자라는 쿠틀리에의 예상은 정확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두터운 벽체의 뚫고 창을 통해 들어온 신비한 색광과 천창의 빛,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가 손수 그린 건물 출입문 위에 부착된 패널 벽화야말로 성미술 운동의 정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쿠틀리에 신부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1954년 2월 9일 사망하지만, 사망하기 전에 쓴 마지막 원고에서 통상성당에 대해 빛과 그림자

가 정교하게 배분되어 있는 서양 현대건축물중 가장 빼어난 걸작으로 서술하였다.[25]



Fig. 8. Ronchamp



Fig. 9. Ronchamp Insides

4.1.3 라투렛 수도원

1952년 10월 22일, 북유럽에 머물고 있던 쿠틀리에 신부는 라투렛 수도원 건립소식을 듣고는 곧장 리옹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 관구장에게 1930년대 파리 근교에 세워진 수도원이 건축적으로 혹평을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건축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프랑스에 세 개의 수도회 관구를 두고 있었는데, 리옹 관구가 그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모리스 노바리나에 의해 수도원 설계도면이 완료되어 정부의 심사가 끝난 상태이기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는 답을 받았다. 쿠틀리에에는 처음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수도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대의 가장 우수한 건축가에게 맡겨야 하며 수도회 관구장의 결정이 역사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는 충고까지 덧붙이며 대응했다. 쿠틀리에의 조언이 수용되어 건축가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건축가 선정 투표가 이루어지는 1953년 2월,

쿠틀리에에는 리옹관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자에 가까운 독실한 신앙과 재능을 갖춘 건축가가 수도원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면, 신앙은 있으나 재능이 없는 건축가보다는 신앙은 없지만 재능이 있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26]. 쿠틀리에가 추천한 건축가는 르 코르뷔지에였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르 코르뷔지에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때 쿠틀리에 신부가 르 코르뷔지에에게 주문했던 요구 조건은, “조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무신론자였던 르 코르뷔지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Fig. 10. La Tourette Monastery



Fig. 11. Chapel

“르 토로네 수도원을 방문하길 바랍니다. 수도원이 세워질 당시의 본질을 당신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곳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침묵을 고수하고, 자기 성찰과 명상으로 헌신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했던 곳으로 시간이 흘러도 별로 변하는 것이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르 코르뷔지에에는 르 토로네 수도원을 방문하고는 후기로 이런 문장을 남긴다.“빛과 그림자가 진실의 건축을 대변하는 확정기다” (the light and the

shadow are the loud- speakers of this architecture of truth) 이 문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architecture of truth’이다. 도미니크 수도회와 쿠틀리에가 추구하는 ‘진실(Truth)’와 순수함(Purity)의 건축과 일치하는 것으로 [27] 르 코르뷔지에는 ‘진실의 책’ 서문의 끝에 “빛과 그림자는 진실함과 고요함과 장엄함으로 이 건축에서 크게 외치고 있다.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 이 미숙한 콘크리트의 시대에 처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조우를 기뻐하고 축복하여 반기자.”[28]라고 기술하였다.

르 토로네 수도원을 다녀온 1953년 9월 르 코르뷔지에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일부 수사들은 시토회 수도원과 너무 비슷해 도미니크 수도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쿠틀리에가 묵살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1954년 1월 30일, 쿠틀리에 신부는 르 코르뷔지에에 대한 마지막 에세이를 완성하는데, 문장 속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서술하였다. 르 코르뷔지에가 평생 동안 설계한 217개의 계획안 중 교회프로젝트는 7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쿠틀리에가 의뢰한 룡상교회와 라투렛 수도원만이 실행되었고, 1965년에 설계한 피르미니성당은 사후 40년 후에야 완공되었다. 쿠틀리에의 거장에 대한 안목이 빛을 발한 것이다.

4.1.4 로스코 채플

로스코 채플은 쿠틀리에가 사망하고 17년 후인 1971년 완공된 작은 채플로 오늘날 대표적인 성미술 운동의 대표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가이자 예술 후원자인 도미니크 드 메닐은 세계적인 석유기업 솔름베르거의 상속녀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다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뉴욕에 머무는 동안 같은 시기에 뉴욕으로 건너 온 쿠틀리에 신부와 교류하면서 성미술 운동에 깊이 감화되어 그 취지를 전수받았다. 1952년에는 쿠틀리에의 안내를 받아 아시성당과 방스의 로사리오성당, 그리고 건설 중인 룡상교회를 방문하고는 현대 추상미술이 종교건축과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마티스가 참여한 방스의 로사리오 성당은 로스코 채플이 탄생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솔름베르거사의 본사가 위치한 휴스턴으로 돌아온 도미니크 드 메닐은 앙리 마티스가 참여한 방스 성당에서 느꼈던 감동을 재생시키기 위해 휴스턴의 성토마스 대학 캠퍼스 내에 채플을 건립하기로 하였다[29].

채플을 설계할 건축가로 필립 존슨을 선임한 뒤, 건축가와 함께 작업할 화가로 마크 로스코를 선정하였다.

마크 로스코는 1964년부터 뉴욕 맨해튼에 작업실을 빌려 작품 제작에 돌입하여, 14점의 대형 벽화를 차례로 완성해 나갔다. 필립 존슨은 1964년 10월 로스코에게 사각형 평면을 제시하지만 로스코의 머리 속에는 팔각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라벤다 여행을 통해 팔각형의 예배당 내부공간에 대한 강한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립 존슨의 계획안과 로스코의 수정안이 교류되면서 평면도는 한 달 만에 로스코의 요구대로 팔각형으로 바뀌었다[30]. 건축가와 화가 사이의 의견 대립은 지붕의 형태와 빛의 해결에서도 발생했다. 필립 존슨은 높은 천정고를 지닌 삼각 피라미드형 지붕을 제안한 반면 로스코는 낮은 천정을 요구했다.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종교건축이 갖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낮은 천장보다는 높은 천정 상부에서 유입되는 초점조명이 성당 내부의 초월적 신비감을 자아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로스코는 그림에 담긴 숭고성의 표현을 위해 차분한 빛의 유입에 의한 어두움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강한 조명보다는 희미한 산란 조명 상태에서만이 회화의 미묘한 색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플 내부를 압도하는 매스의 수직적 상승감은 그림 자체를 왜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낮은 지붕과 중앙 채광장으로 수정되길 원했다. 특히 휴스턴 지역의 일광은 매우 강했기에 조명의 처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마찰로 인해 1967년 이후 계획은 한동안 중지되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필립 존슨은 채플 계획에서 손을 뗄 것을 결심하였고, 설계는 휴스턴의 건축가 반스톤·유진 오브리(Banstone and Aubry)에게 넘겨졌다. 로스코의 요구대로 낮은 천정으로 대체되었고, 실내의 벽과 바닥의 색채와 질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벽은 광택을 없애기 위해 회벽 바탕에 중성적인 색상의 수성페인트로 칠해졌고, 바닥에는 푸른색이 감도는 암갈색의 타일이 선택되었다. 거친 질감과 어두운 색상의 마감재를 통해 상당량의 빛을 흡수시킴으로써 청빈함을 추구하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원 내부처럼 어두움에서 표출되는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공간이 조성되었다. 회화가 표출하는 숭고의 미학이 교회의 내부공간과 합일되어 성미술 운동의 본질을 구현한 채플로 평가되고 있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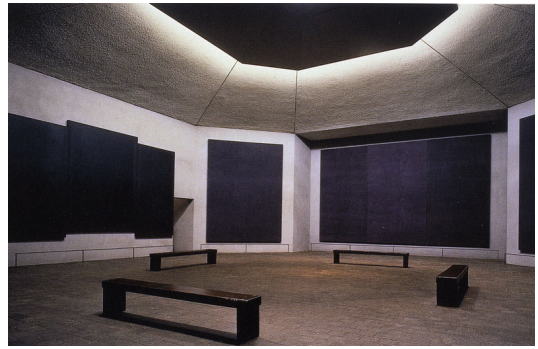


Fig. 12. Mural of Mark Rothko in Rothko Cha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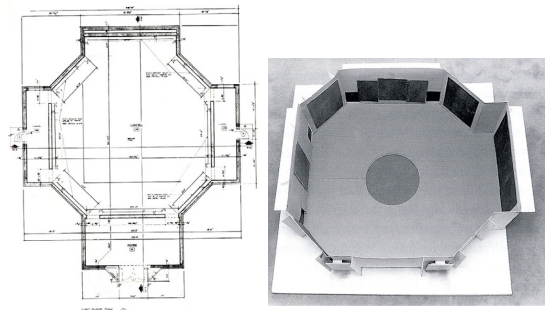


Fig. 13. Rothko Chapel

로스코 채플 내부에는 십자가나 어떤 성상도 존재하지 않고, 팔각형 내벽에는 오직 로스코의 대형 그림 열네 점만이 걸려 있어, 개인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사람들은 로스코가 남긴 어두운 색면을 응시하면서 명상과 침묵에 빠지게 되며, 형태도 없고 주제도 없으며 아무런 조형을 포함하지 않은 채색면 추상의 그림들과 미세하게 조절된 자연 채광이 합일되어 성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는 쿠튀리예가 라르 사크레지에서 언급했던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의 ‘존엄함’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설립자 도미니크 드 메닐은 로스코 채플이 완공된 후 쿠튀리예가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기고한 글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했는데, 쿠튀리예의 성미술 운동에 대한 헌정이라 할 수 있다.

4.2 분석의 종합

본 절에서는 상기 사례분석한 내용을 종합하고 각각의 사례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과 디자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Table 2. Type-A of L'Art Sacré Movement

Projects	Artists & Critics
The church of the plateau d'Assy France, 1946 Architect: Maurice Novarina	- Make an Altar : J.Leucate - Stainedglass + Mural : G, Rouault, M. Chagall, H. Matisse, P. Bonnard, J. Rimsitz, J. Leucate, J. Bazaine - Too Many Artists Involved - Lack of Unity - Sacred Space Image Composition Fails
Sacred Heart Catholic Church, Audincourt, France, 1952 Architect: Maurice Novarina	- Facade Mosaic : F. Lager - Stainedglass : F. Lager - Altar Decoration : J, Bazaine - Recognized Importance of Architect Selection for Success of L'Art Sacré Movement - Change Clues : L..Corbusier from Novarina

Table 3. Type-A Chur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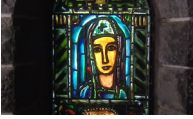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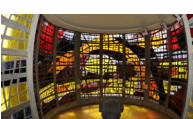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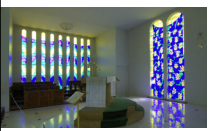






Churchs	Facades / Interiors	Stainedglass/ Mural & Altar
d'Assy		
	Architect : M. Novarina	Stainedglass : G. Rouault
Audincourt,		
	Altar Picture : J.Leucate	Mural : H. Matisse
Audincourt,		
	Architect : M.Novarina	Stainedglass : F. Lager
Ronchamp		
	Stainedglass : F. Lager	Altar Mural : J. Bazaine

Table 4. Type-B of L'Art Sacré Movement

Projects	Artists & Critics
Chapelle du Rosaire de Vence (Chapel of the Rosary) 1948-1951 Designer : Henri Matisse	- Bldg. & Interior Design - Stainedglass & Mural : H. Matisse - Simple Rectangular - 3 Murals & Stainedglass - Abstraction by Energeic Line Depicting -> Matisse Type - Quality Improve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Great Artists in Church Design -> A. Couturie
Chapelle Notre Dame du Haut Ronchamp, France, 1950-1955 Architect : Le Corbusier	- Bldg. & Interior Design - Stainedglass & Mural : Le Corbusier - Blanding & Lighting from Building Exterior -> Accord to L'Art Sacré Concept by Priest Couturie - Unity between Religious Sanctity and Chuch Art -> The Most Successful Project

Table 4. Type-B Churches

Churches	Facades / Interiors	Stainedglass/ Mural & Altar
Chapelle du Rosaire		
	Facade	Stainedglass
Chapelle du Rosaire		
	Altar Mural	Entrance Mural
Ronchamp		
	Facade	Gate Mural
Ronchamp		
	Interior	Stainedglass

쿠티리에 신부가 주창한 성미술 운동에 의해 진행된 건축 프로젝트를 종합해 보면, 상기 표와 같이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 여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방식(유형-A)에서 한 명의 예술가 혹은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방식(유형-B)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향은 라르 사크레 1951년 1-2월 호에 쿠티리에 신부가 기고한 ‘아시아의 교훈’에서 지적했듯이 여러 명의 예술가가 참여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통일성의 결여와 그에 따른 간결함과 성스러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생된 것이었다. 즉 이를 통해 로사리오 성당과 룡상 성당처럼 건축과 장식예술이 통합적 사고 아래 총체예술적으로 결합될 때 성미술 운동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19세기 이후 만연한 고딕복고를 중심으로 한 양식주의적이고 절충주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의 흐름에 적합한 교회건축의 향방이 고찰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례운동(Liturgical Movement)에 의한 예배의식의 변화와 20세기 근대건축운동의 영향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쿠티리에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들이 주창한 라르 사크레 운동의 결과임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종교건축 프로젝트의 부흥은 전쟁으로 파괴된 수많은 성당의 재건과 맞물려 있으나, 성당건축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일생을 보냈던 쿠티리에 신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성미술 운동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시성당을 비롯해 로사리오 체플과 룡상성당이 세워지는 1950년대 초반은 성미술 운동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쿠티리에 신부, 라르 사크레지의 성미술 운동의 실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건축개념이 담긴 글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바,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이후 전개된 가톨릭 교회 건축의 퇴행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교회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무신론자 혹은 이교도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성당 신축에 참여시키는 개혁적인 자세를 취했다. 논쟁적인 종교예술과 건축 프로젝트를 심의하는 성미술 위원

회(Commission d'Art Sacre)를 설득하여,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쿠티리에 신부의 위대성과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성미술 첫 프로젝트인 아시성당의 실패 원인을 찾아내어 교훈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건축가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교훈과 함께 스테인드글라스를 포함한 교회 장식에 여러 예술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쿠티리에 신부, 르 코르뷔지에를 성미술 운동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건축가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룡상 성당과 라투렛 수도원과 같은 위대한 성미술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직접적 동인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쿠티리에의 건축개념의 특성은 ‘시적’(Poetic) 분위기의 창출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딕성당의 위용과 수사적인 장식보다는 로마네스크 건축이 지닌 차분함과 검박함, 재료의 즉물성과 순수함을 예찬하고 있음을 볼 때 모더니즘의 추상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르 토로네 수도원과 세낭크 수도원이 지닌 순수함과 검박함을 강조한 배경은 20세기 모더니즘 예술이 지닌 평면성의 추구, 선과 평활한 면의 강조, 장식성의 배제와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라투렛 수도원을 설계하기에 앞서 르 토로네 수도원 방문을 권했던 쿠티리에의 건축적 안목과 성과에 대한 집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쿠티리에 신부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성미술 운동의 취지와 디자인 전략은 로스코 체플을 통해 현대의 종교건축 디자인 전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쿠티리에 신부는 단순한 수도자가 아닌 고도의 예술적 사유와 건축적인 식견을 갖춘 교회건축의 개혁자라 할 수 있다.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유능한 건축가와 현대예술가들을 종교의 전당으로 안내했고 그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건축사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완성된 로사리오 체플과 룡상성당, 라투렛 수도원은 성미술 운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바, 성미술 운동 개개의 결과물에 대한 특성 고찰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Reference

- [1] William J R Curtis,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 178, Phaidon Press, 2003, Charles Jencks,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 p.276, The Monacelli Press, 2000.
- [2] M. A. Couturier, Sacerd Art,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9.
- [3] Father Marie-Alain Couturier a 9nd the Sacred Art Movement, p.9,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2.
- [4] Denis McNamara, Almost Religious: Couturier, Le Corbusier and the Monastery of La Tourette, Sacred Architecture 2, p.22, 1999.
- [5] Charlene Spretnak, The Spiritual Dynamic in Modern Art: Art History Reconsidered, 1800 to the Present, p.174, Palgrave Macmillan, 2014.
DOI: <https://doi.org/10.1057/9781137342577>
- [6] William S. Rubin. Modern Sacerd Art and the Church of Assy, p.7, Columbia University, 1960.
- [7] Charlene Spretnak, The Spiritual Dynamic in Modern Art: Art History Reconsidered, 1800 to the Present, p.174, Palgrave Macmillan, 2014.
DOI: <https://doi.org/10.1057/9781137342577>
- [8] Nicholas Pan, Youyoung Huh, Le Corbusier's Last Vision, p.73, The covent on the hil, Culturebooks. 2009.
- [9] 501 Great Artists, Maronie Books, 2009.
- [10] William S. Rubin. Modern Sacred Art and the Church of Assy, p.30, Columbia University, 1980.
- [11] J. L. Perie, Adventure 2 of 20th Century Art, p.484, AP International, 1993.
- [12] M.A. Couturie, Sacred Art, Univ. of Texas Press, 1989.
- [13] Marie-Alain Couturier, op. cit, p.11
- [14] Marie-Alain Couturier, op. cit, p.56
- [15] Marie-Alain Couturier, op. cit., pp.14-17
- [16] Marie-Alain Couturier, op. cit, p.111
- [17] J. L. Perie, Adventure 2 of 20th Century Art, p.484., AP International, 1993.
- [18] Nicholas Pan, Youyoung Huh, op.cit. p.73
- [19] Hilary Spurling, Matisse the Master-A Life of Henri Matisse: p.450, The Conquest of Color, 1909-1954
- [20] William S. Rubin. Modern Sacred Art and the Church of Assy, p.71. Columbia University, 1960.
- [21] Nicholas Fox Weber, Le Corbusier, p.63, Alfred A. Knopf, New York, 2008.
- [22] Charles Jencks,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 p.263, The Monacelli Press, 2000.
- [23] Nicholas Fox Weber, Le Corbusier, Alfred A. Knopf, pp.664-665, New York, 2008.
- [24] Dosik Kim, Reading for Le Corburier Works, p.237, Kimoondang, 2002.
- [25] Marie-Alain Couturier, op. cit. p.154
- [26] Nicholas Pan, Youyoung Huh, Le Corbusier's Last Vision, p. 135, The covent on the hil, Culturebooks, 2013.
- [27] Charles Jencks,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 p.327, The Monacelli Press, 2000.
- [28] Nicholas Pan, op. cit. p.19
- [29] Peter Marzio, Marti Mayo, Image of the Not-Seen: Search for Understanding, p.22, The Rothko Chapel Art Series, 2005.
- [30] Susan J Barnes, The Rothko Chapel, An act of Faith, pp.51-52, The Rothko Chapel, 1996.
- [31] David E. Brauer, Space as Spirit (Image of the Not-Seen: Search for Understanding, pp.52-53, The Rothko Chapel Art Series, 2005.

반 상 철(Sang-Chul Bahn)

[정회원]



- 1983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공학박사)
- 1984년 3월 ~ 2002년 8월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 2002년 9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도시설계, 친환경건축

김 흥 기(Hong-Ki Kim)

[정회원]



- 1986년 8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95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12년 1월 ~ 2013년 12월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
- 1991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건축역사, 실내건축